

與 저출생 대책 vs 野 정권 무능 ‘부각’

韓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해야” 李 “무능한 정권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해”

총선 공식 선거 개시일을 3일 앞둔 25일 여당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야당은 현 정권의 무능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각각 ‘표밭’을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



지지 호소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 지지연설을 하며 후보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왼쪽). 이날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지역출마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3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벌거숭이 임금만 만드는 거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3월)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단을 들고 ‘875이면 합리적인 가격인데’라고 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 참 안타깝다”며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 지역 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구체적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KTX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말따행파(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尹 지지율, 2.1%p ↓ 36.5%...국힘 37.1%·민주 42.8%

국민의미래 29.8%, 조국혁신당 27.7%, 더불어민주당 20.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2.0%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1%p 낮아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1.7%p 오른 60.1%로, ‘잘 모름’은 0.4%p 오른 3.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41.9%를 기록한 뒤 최근 4주 연속(41.9%→41.1%→40.2%→38.6%→36.5%) 하락세를 보였다.

권역별 하락 폭은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2.6%p), 부산·울산·경남(2.0%p), 서울(1.7%p), 광주·전라(1.5%p) 등이었다.

연령대별 하락 폭은 50대(6.1%p), 60대(5.1%p), 20대(2.4%p), 30대(1.1%p)

등의 순이었다. 다만 40대에서는 2.0%p 올랐다.

이날 성향별로 중도층(3.2%p)과 보수층(2.1%p)에서 각각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내리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4.9%p), 대구·경북(2.1%p), 인천·경기(2.0%p)에서 내리고, 부산·울산·경남(6.8%p)에서 올랐다.

민주당은 서울(6.3%p), 광주·전라(4.1%p), 부산·울산·경남(2.5%p), 대구·경북(2.4%p)에서 오르고, 대전·세종·

충청(3.3%p)에서 내렸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3.8%(0.4%p ↓), 새로운미래 3.1%(0.5%p ↑), 녹색정의당 1.8%(0.3%p ↑), 자유통합당 1.7%(0.9%p ↓), 진보당 1.6%(0.3%p ↑)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p 줄어든 5.0%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9.8%(1.3%p ↓), 조국혁신당 27.7%(0.9%p ↑),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연합 20.1%(2.1%p ↑)로 집계됐다.

이외 새로운미래 4.6%(0.6%p ↑), 개혁신당 4.1%(0.8%p ↓), 녹색정의당 3.1%(0.4%p ↑), 자유통합당 2.8%(1.4%p ↓), 기타 정당 1.9%(0.2%p ↓) 등이었다. 무당층은 0.3%p 줄어든 5.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연합 “檢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조국혁신당도 국정조사 추진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 연합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준환·송

창욱·이주희·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중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김종인 “서울서 패하면 정권붕괴 현상 초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2대 총선과 관련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서울에서 패할 경우, 정권 붕괴 현상이 초래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서 패할 경우 여당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안민정

책포럼(이사장 유일호) 22대 총선거 특별세미나’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1958년 4대 총선에서 자유당이 서울 1석을 빼고 전멸하는 바람에 자유당 정부의 몰락을 가져왔고, 1978년 10대 총선, 1985년 12대 총선 등에서도 집권 여당이 서울서 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서울서 패할 경우 이런 험난한 경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의 호감을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수 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